나도 진짜 내 몸 부활 때 비로소 가진다

(고린도전서 15:12~19)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도 진짜 내 몸 부활 때 비로소 가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도 진짜 내 몸 부활 때 비로소 가진다”

고린도 교인 중에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헬라 문화권의 중심에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인지 일반인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인지 혹은 둘 다 믿지 못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일반인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일어날 수 없

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감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일반인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을 열거하였던 것을 염두에 두자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불변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이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29절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가 구분 없이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들이 기다리는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서 부활의 첫 케이스로 예수님께서 몸소 부활하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임을 보증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은 고린도 교인들과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 여부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과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구차하게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변명하듯이 설명하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믿고 선포하는 것이지 변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도 보증해주십니다. 다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불신자가 아니지만, 본의 아

니게 부활 무의미론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기에 지금 삶의 현장을 사는 동안에는 전혀 의미 없는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미의 차원에서 보자면 일상의 삶에서 부활은 거의 축출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일어날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기는 하지만 당장 삶의 현장에서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이라는 부분의 번역은 다소 아쉽습니다.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바라야 한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곧 우리는 부활신앙 때문에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바람을 갖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살듯이 죽은 다음에는 부활해서 살게 되는 삶을 바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바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오픈 게임이라면 죽은 뒤의 삶이 메인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삶은 부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한 있음이시며 유일한 좋음이시며 유일한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원초적 실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가지 유일하심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이 살아있는 동안, 즉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유일하심은 원초적 실존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리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생활화를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입고 태어난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마음과 몸은 유착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자마자 마음에서 몸을 잘라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하며 마음이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할례에 비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칼로 삼아서 마음과 몸의 유착 상태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의 유착에서 벗어난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면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 증거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세상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사장님을 보아도 사장님보다 하나님의 있음을 더 먼저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유일한 좋음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증거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땅에는 몸이 남게 됩니다. 이제 몸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작용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몸을 장갑으로 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몸이 공생애 때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공생애와 사생애로 나눠집니다. 구원 사건을 이루시는 마지막 3년 동안이 공생애이고 그 전의 30년의 삶이 사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른 살 이후에 그리스도로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몸을 장갑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몸을 우리의 몸이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나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몸은 어떤 면에서든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음과 몸은 유착되어 틈새 없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되자 날카로운 칼날로 할례를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과 몸을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땅에 남아있는 몸은 하나님의 손이신 성령님께서 장갑으로 끼셔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마음이 아무런 유보나 주저함이나 거리낌 없이 기쁨으로 가져도 되고 누려도 되는 몸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 천국과의 관계에서 몸은 없고, 아래로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몸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마음 놓고 달라붙어 연합해도 되고 진짜 내 몸으로 가져도 되는 몸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음 놓고 가져도 되는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입고 있었던 몸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몸은 마음과 유착되어 있다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과제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함을 보이고자 한다면 육체의 오감으로 만나는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대신에 마음에서 육체를 잘라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몸의 존재 의미입니다. 이처럼 몸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는 마음에서 잘라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사람 사랑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장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마음 놓고 몸에 달라붙어서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극복해야 할 몸이고, 사람 사랑을 위하여 내놓아야 할 몸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전제를 놓고 보면 부활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부활은 태어날 때 입고 있던 몸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부활 때 비로소 진짜로 가져도 되고 마음이 달라붙어도 되고 누려도 되는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하늘의 가족이듯, 우리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한 진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마음은 몸에 붙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전 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몸은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마음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또한 사람 사랑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장갑으로 끼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몸입니다. 이처럼 내 몸은 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 몸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누리고 기뻐할 삶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이것을 분명하게 갈라줍니다. 내가 누리고 즐기고 행복해도 될 삶은 진정으로 내가 가져도 되고 내 마음이 달라붙어도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몸이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져 있는 몸을 마음에서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축복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버려야 될 몸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최선의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려오셔서 장갑으로 끼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에 달라붙어서 좋아하며 살 수 있는 삶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에서 부활은 진짜 내 몸을 허락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잘라내야 될 몸,

사람 사랑 때문에 내어드려야 될 몸 대신에 진짜 가져도 될 몸을 허락받는 순간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마음이 몸을 버리고 하늘로 떠난 사람, 사람 사랑을 위하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사람은 자기 몸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이 주어집니다. 천국에서 진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뒷부분을 보면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받을 때는 너무 아름다워서 날마다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심판의 부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다시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일이란 태어날 때 입은 몸을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 붙잡고 그것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자기의 몸이라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 마음이 몸을 떠난 적이 없고, 사람 사랑을 위해 몸을 성령님이 끼실 장갑으로 내어드린 적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몸을 자기 것으로 붙잡고 그 몸으로 만나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겪게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위한 진짜 자기 몸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몸을 진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부활하여 지옥에 들어가서 살 때는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아닌 몸을 좋아하고 사랑한 만큼 지옥에서 갖게 될 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지겨워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부활 때에 받게 되는 진짜 몸은 내가 보고 다른 성도들이 보아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몸을 자기 것으로 사랑

하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자기 몸을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영원히 지긋지긋하게 여길 것이며 적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천국에서 몸의 아름다움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날마다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지옥에서는 몸의 끔찍함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날마다 지긋지긋하고 무서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마음이 몸에 철석같이 달라붙어서 내 몸인 줄 알고 산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은 채워지기 위해서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마음이 몸에 달라붙었으니 몸의 오감을 통해 접하는 것들에 흡입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몸은 이곳저곳 다 망가지게 됩니다. 술 담배로 몸이 망가지고, 무절제한 삶을 사느라 몸이 망가지고, 세상일 때문에 신경 쓰느라 몸이 망가집니다. 후회스럽기 그지없는 상태가 됩니다.
망가지고 병들고 헐어버린 몸에 대해 후회막급한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후회하면서 몸을 붙잡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망가진 몸 그대로 놔두고 헐어버린 몸을 그대로 놔두고 마음은 하나님 사랑을 위해 주님의 몸을 따라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망가진 몸 그대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하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 연쇄 과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은 주님의 승천하심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만을 인정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아무리 망가졌던 몸이라도 성령님께서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후회하느라 마음이 몸에 붙어있는 상태에 꼼짝없이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병이 들었든지 망가졌든지 마음은 몸을 떠나야 합니다. 이 몸은 나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진행되는 동안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몸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마음이 몸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몸을 잘라버린다는 것은 몸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버림을 의미합니다. 몸이 있어야 이 세상의 관계도 있고 삶도 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만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함을 보이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몸을 내 몸으로 붙잡으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

있는 몸은 하나님의 손 되시는 성령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이처럼 몸이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도 포기하고 사람 사랑도 포기한 채 몸을 내 것으로 아는 삶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몸은 사람 사랑을 위하여 성령님의 장갑이 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망가진 몸을 가지게 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잘못과 미련함과 악함도 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마음을 받아들여 주시고 몸은 성령님의 장갑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져도 되고 달라붙어도 되고 누려도 되는 내 몸은 예수님이 오시는 부활 때 주어지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몸을 주실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지금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 가져야 할 것은 지금의 내 몸이 아닙니다. 진짜 몸은 부활 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몸으로 해야 될 일은 마음에서 잘라냄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재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장갑으로 내어드림으로써 사람 사랑의 재료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부활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한층 더 철저하게 업그레이드되어서 참으로 유일하다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